

## 2010.11.22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FAO, 2011년 곡물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 전망

## 1. FAO(2010.11.17) 주요 내용

- FAO “Food Outlook 보고서”에 따르면, 2011년 식품 가격 상승으로 국제 수입결제어음이 2010년의 1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.
  - 식품 수입결제어음이 1조달러를 초과한다는 것은 **식품 가격이 2007-08년 식량 위기 당시 가격 수준보다 높다**는 것을 의미함.
  - 2010년 현재 최빈국과 식량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식품 수입결제어음은 이미 작년보다 10~20% 증가한 수준임.
- 식료품 가격 상승 압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, 국제 사회는 2011년에 식량 위기의 충격을 다시 겪게 될 것으로 대처 방안 마련 필요
- 이러한 곡물 수급의 비관적인 관측은 **예측불허의 기상변화**가 주요 원인임.
  - 금년 6월 전망(1.2% 증가)과 달리, 2011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작년보다 2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 이는 기상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힘.
    - 총 곡물 재고량은 작년대비 7% 감소가 예상되며, 품목별로는 보리 35%, 옥수수 12%, 밀 10% 감소 전망
  - 반면, 쌀 재고량은 작년대비 6% 증가 전망
- FAO는 곡물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내년도 국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도 회의적으로 봄.
- 안정적인 물량 조달을 위해서는 재배 면적 확대가 필요하며, 곡물 가격 상승은 오히려 농가 수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 면적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도 있음.

- 하지만 곡물 대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작목은 콩, 설탕, 면화 등으로 다양하나, 보다 높은 가격을 취할 수 있는 작목에 편중될 수 있음.
  -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, 만약 시장에서 적정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,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, 구매 시 높은 가격 지불도 불가피
- 금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곡물 가격은 대체 수요로 쌀 가격 상승 압박 전망
  - 곡물 가격 상승은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정책, 금융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,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대체관계에 있는 쌀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
## 2. 시사점

- 2011년 주요 곡물 생산량 감소 전망은 예측불허의 기상변화에 기인하는 바,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재배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됨.
- 예상치 못한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수입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## □ 북한, 식량부족 심각

## 1. FAO 및 NewYork Times(2010.11.16, 17) 주요 내용

- FAO/WFP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, 식량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5백만명의 북한 주민은 지속적인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남.
- FAO/WFP의 식량 및 식품 안전 평가팀(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, 이하 평가팀으로 칭함.)이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, 2010/11년도 북한의 곡물 수입 필요량은 86만 7천 톤으로 추정됨.

-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단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32만 5천 톤의 곡물만을 수입할 계획에 있어 나머지 물량인 54만 2천 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음.
- 이에 평가팀은 북한의 어린이, 임산부,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약 30만 5천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에 권고함.
- 평가팀은 방북 기간 동안 북한 식량의 90% 이상을 생산하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을 방문 조사했음. 조사결과, 저장시설에는 곡물 재고량이 이미 바닥났으며, 8월에 생산되어 보관중인 옥수수는 건조가 불량하여 품질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.
- 비료, 농약, 농기계 등 농자재 조달이 원활해 당초 금년 곡물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. 하지만 태풍, 홍수 등 기상재해가 겹치면서 곡물 생산량은 작년보다 단지 3%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.
- 북한은 1% 미만의 낮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림어업 분야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음. 이러한 경기불황은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.
-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곡물 배급량은 에너지 요구량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함. 공동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만약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, 향후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한 소요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함.
- 북한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) 곡물 저장 시설의 개선, 2) 곡물 건조 기술 향상, 3)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과 식물 생산 확대, 4) 일반 가정에서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팀은 제안함.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